

왜 우리는 건축을 “첨단” 이라 말하지 않는가?

Why Don't We Call Architecture a 'Pioneering Technology'?

金光鉉 /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by Kim, Kwang-Hyun

이제 건축계는 사회를 향하여 자신있게 건축은 '첨단' 이어야 한다고 말해야 할 때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비첨단으로 분류되어 감수해야 했던 잘못된 여러 사실들을 우리 스스로가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적어도 훌륭한 건축가가 되려고 올해도 지망해 오고 있는 우수한 건축학과 신입생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외부의 제도와 건축계 자체의 의식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왜 우리 건축계는 아직까지도 건축은 사회를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첨단 분야' 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

1.

이번 대학입시에서도 그러하였듯이 최근 건축(공)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많은 대학에서 아주 높다. 서울대 건축학과 신입생의 입학성적도 몇 년 전부터 공대에서 최상위에 올라가 있다. 제작년에는 건축학과의 커트라인이 공대에서 가장 높았고, 공대 수석도 건축학과에서 나왔다. 대학 교수로서 인용할 이야기는 못되지만, 모 학원에서는 의예과와 비슷한 수능 점수를 얻어야 건축학대에 갈 수 있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하여는 같은 대학의 다른 학과 교수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수한 학생들이 왜 이렇게 건축학대에 오는 것일까? 텔레비전에 건축가가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몇몇 건축가들이 커피 등 선전에 출연해서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건축을 바라보는 이런 학생들의 눈이 달라지고 있고, 그들이 건축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가 기성 건축가의 판단과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2.

그런데도 매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이렇듯 우수한 학생들이 지망하고 있는 건축(공)학과를 교육부는 정작 지금까지도 '비첨단'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언

젠가부터 우리 나라 대학에서는 이렇게 건축(공)학과의 '비첨단'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렇다면 건축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

이른바 '첨단'으로 분류되는 전자, 전기, 제어계측공학과 등에게는 실험실습비도 많이 배정되고, 갖가지 연구비로 건축학과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심지어 건축은 종이만 쓰면 되는 데고, 기계를 사용하여 실험을 하지 않는 학과이니 실험실습비를 오히려 줄이라는 대학도 많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는 신입교수를 첨단 우선으로 배당해 주면서도, 건축학대에 대하여는 별 다른 고려가 없다. 또 '첨단 공학'에 바탕을 둔 정책 기준을 가지고 건축과 토목을 부분적으로 합치라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을 거부하며 건축의 독자성을 주장하면, 이에 대해 대학이 주는 각종의 혜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그러니 '비첨단'으로 분류된 이 나라 대학의 건축(공)학과가 받는 불이익이 돈으로 따져 얼마나 크겠는가?

이렇게 대학의 건축(공)학과가 비첨단으로 분류된 지 한 두 해가 아닌데도, 학회를 비롯한 이 나라 건축계는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스스로 건축이 '첨단'이 되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건축사협회나 건축가협회는 이것은 교육에 관한 문제이니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를 건축학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 건축계 전체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비

단 교육에 관한 것으로 흘러 버릴 일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이 사회가 건축을 평가하는 시각 그 자체인 것이다.

건미준에서 낸 어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GNP에서 건축(건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2.7%라고 한다. 건축이 이렇듯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도 이 사회는 이 사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당연한 듯이 건축을 '비첨단'으로 분류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실제로 대규모의 건설 사업이 떨어지면 공적이든 사적이든 외국의 기술진을 불러들인다. 안을 믿을 수 없으니 밖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안'을 제도적으로 키우려 들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일간신문에도 주장하고 싶은 바이지만, 단적인 예로 최근에 건설되고 있는 영종도 국제 공항만 해도 그렇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우리나라에 이런 대규모 국제공항을 설계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설계 업체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나라에는 건축의 '첨단기술'이 없다는 말이다. 얼마 전에 있었던 대전 엑스포에서도 인테리어의 많은 부분을 일본의 기술진이 담당했다고 한다. 각종의 첨단 장치를 내장한 인테리어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 일본의 '고도의' '첨단기술'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

국내에서 첨단의 신소재를 개발하면 신문은 대단한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크게 보도한다. 그러나 반대로 대규모 건축 공사를 하기 위해 외국의 기술진을 불러야 하는 경우, 신문은 그 용역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 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전기, 전자 등과 같은 교육부에서 '첨단'으로 분류한 분야에서 새로이 개발하여 얻은 경제적 이득에 대하여, 건축을 '비첨단'으로 방치함으로써 외국에게 주어야 하는 손실이 어떤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지 정확한 수치로 비교해 보고 싶다. 문자 그대로 '첨단'의 신기술로 벌어들인 돈을 '비첨단'인 건축에서 허비하는 꼴이다. 설사 이 비율이 몇 분의 일이라도 문제가 덮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건축을 언제까지 '비첨단'으로 분류해 방치할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분류를 언제까지 참고 바라볼 것인가?

지금도 현대의 세계 건축은 첨단의 기술을 통합하며 새로운 세계로 지향해 가고 있다. 이제 세계화의 원년에서서 한국의 건축 기술을 국제적 환경에 노출되게 되어 있고, 국내의 건축 시장은 종래보다 더욱 더 외국의 첨단기술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견지하고 있는 첨단 공학의 기준은 빨

리 고쳐져야 한다. 그리고 '비첨단'으로 분류되어도 아무런 의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스스로를 비첨단의 로우테크의 하나로 여겨지기를 자조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계의 의식에 관한 문제이다.

3.

이제까지 건축계에서 건축의 역할을 정의하는 말 중에 가장 흔히 들어 온 말은 아마도 "건축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다"라는 말일 것이다. 이 말은 종종 형식주의적 건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에는 거울이란 비추면 되는 것이어서, 건축이란 사회에서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는 뉘앙스가 들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러한 안이한 정의로는 반대로 그 거울이 우리를 다시 묶어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최근에 일어난 대규모의 사건 때문인지, 사회는 건축계라 하면 '부실'을 연상한다. 문자 그대로 건축은 '부실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한두번의 경험이 있으면, 건물은 누구나 웬만큼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건축과 토목을 구별조차 못한다. 그래서 그런지 모 대학 교수는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을 '건축가'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신문에다 쓸 정도다. 어느 때는 건축을 '건설'이라 불러 건축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더니, 이제는 고베에서 지진이 나 많은 집과 다리와 도로가 무너지자, 신문은 일본 '건축물'에 문제가 있다고 아무렇게나 말한다. 건축이 이 사회를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첨단의 기술'을 향해 얻어내야 할 것들이 그 얼마나 많은데, 건축은 언제까지나 아무나 해도 되고, '부실의 거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것은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건축계 전체의 문제이다. 이제 건축계는 사회를 향하여 자신있게 건축은 '첨단'이어야 한다고 말해야 할 때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비첨단으로 분류되어 감수해야 했던 잘못된 여러 사실들을 우리 스스로가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적어도 훌륭한 건축가가 되려고 올해도 지망해 오고 있는 우수한 건축학과 신입생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외부의 제도와 건축계 자체의 의식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왜 우리 건축계는 아직까지도 건축은 사회를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첨단 분야'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